

쇼트트랙 최민정, 500m 銀 추가

ISU 월드컵 2차 1000m 우승에 이어... 김길리는 동메달 획득

돌아온 쇼트트랙 최강자 최민정(성남시청)이 시즌 첫 우승에 이어 추가 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펼쳐진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결승에서 42초40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끊었다.

최민정은 42초087로 우승을 차지한 산드라 벨제부르(네덜란드)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열린 여자 1000m 경기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따내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던 최민정은 이날 대회 멀티 메달 획득에도 성공하며 이번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키웠다.

대표팀 후배 김길리(성남시청)도 42초955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최민정과 함께 포드움에 올랐다.

4번 라인에서 이날 500m 경기를 시작한 최민정은 경기 내내 하위권에 처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왼쪽)과 김길리(오른쪽)가 4일(한국시각)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펼쳐진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결승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져 있었으나, 1바퀴 반을 남기고 아웃 코스로 추월을 시도, 마지막 바퀴에서 크리스텐 산토스-그리스월드(미국)와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를 넘어서

며 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그리스월드가 넘어진 사이 김길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을 시도 하며, 폰타나보다 0.014초 앞서 결승선을

끊고 동반 메달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주 열린 1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김길리는 이번 2차 대회에선 같은 종목 은메달(2분27초232)을 목에 걸었다.

2회 연속 1500m 금메달을 노리던 김길리는 이번엔 1차 대회 당시 은메달을 땀던 하너 데스뫼(벨기에·2분27초149)에게 우승을 내줬다.

경기 중반까지 최민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며 동태를 살피던 김길리는 5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경쟁자들을 추월하며 단숨에 선두에 올라섰다.

다만 김길리는 마지막 코너에서 데스뫼에게 인코스스를 내주며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최민정은 경기 막판 산토스-그리스월드와 충돌하며 6위(2분48초014)로 경기를 마쳤다.

전날 열린 여자 계주 3000m 결승에서 2위로 들어오기도 실격이 선언되며 메달을 놓쳤던 최민정은 이날 열린 2000m 혼성 계주에선 결승에 오르지 못하며 추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뉴시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4일 오전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제공>

“꿈수 3연임 도전 안될말”

대한체육회 노조, 이기흥 현 회장 퇴진 촉구 기습시위 스포츠공정위에 “공정·상식에 입각해 안건 심의” 요구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기습적으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체육회 노조는 4일 오전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이날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임원 연임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임 심의 안건을 심의를 열 예정이었다.

이에 대한체육회 노조는 현장을 찾아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회장은 그동안 국회·정부·언론 등의 비판과 노조의 2차례 규탄 성명서 발표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변화 없이 기어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체육회장 3선임 신청을 제출했다”고 일갈했다. /뉴시스

이날 노조는 이 회장을 향해 “정부가 국회도 무시하고 꿈수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고 외쳤고, 공정위에도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안건을 심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노조는 “이 회장은 현 시국에도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을 피하고자 각종 꿈수 국의 출장 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변명이나 사과 없이 도피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우리 노동조합은 이 회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며,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지 구성원들을 대표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할 때까지 단결·투쟁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생활체육 동호인 왕중왕전 성황리

익산시 개최... 10개 종목에 전북 동호인 4500여명 참가

익산시에서 지난 2~3일 열린 '2024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4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최강 동호인팀을 가리는 대회가.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당구 △볼링 △배구 등 10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324개 클럽에서 선수와 임원 등 약 4,5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에서는 42개 동호인팀, 520여명의 선수가 모든 종목에 참여해 도내 14개 시군의 동호인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42개 동호인팀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게이트볼과 당구, 볼링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족구는 2등, 배구·축구·탁구에서는 3등을



'류현진재단 자선골프대회' 개최 고 있다. 4일 오전 강원 횡성군 벨라45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신한 Premier 류현진재단 자선골프대회'에서 라운딩 시작한 류현진 이사장과 참가한 셀럽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왕중왕전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비롯해 동호인 간의 소통과 화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익산시민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창군수배 파크골프대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 2일 고창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고창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고창군체육회(회장 오철환)가 주최하고 고창군파크골프협회(협회장 박

현규) 주관으로, 열린 대회는 고창 관내 9개 클럽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일반부 남녀 개인전 18홀 저타 경쟁경기(스트로크, 샷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자는 고인돌클럽의 김강백씨, 여자는 행복클럽의 백순자씨가 우승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미인씨름단, 김홍도장사씨름 단체전 3위 차지

점음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안산 김홍도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점음 씨름의 위상을 높였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예선에서 용인특례시청 씨름단을 물리치고, 8강에서는 영월군청 씨름단을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증평군청 씨름단에 아쉽게 패하며 최종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금강급의 정석진 선수였다. 상반기 부상에서 복귀한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승리를 이끌어내며 주위의 우려를 씻



어냈다. 또한 단풍미인씨름단의 주장 정상호 선수는 팀을 이끌며 후배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단풍미인씨름단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영암군에서 열리는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점음=김대환 기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대표상징물(디) 25년 만에 바뀝니다!

장수군

JANGSU COUNTY

새디는 금강·섬진강의 발원인 첫물, 청정 산악지역,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저·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성화했습니다.

장수 그린 청정자연과 고원지역 의미

장수 블루 금강과 섬진강의 상류수원 '물의 으뜸 고장' 의미

장수 레드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의미